

## 청소년의 라이프스타일과 개인주의-집단주의에 따른 선호감성 분석

한경미 · 나영주

인하대학교 의류디자인전공

### Preferred Sensation of Adolescents according to their Lifestyle and Individualism/Collectivism

Kyung-Mi Han and Young-Joo Na

Dept. of Clothing & Textiles, Inha University, Incheon, Korea

**Abstract :**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lifestyle and individualism/collectivism of adolescents nowadays and the relationship to preferred sensation. We collected 1386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data which have the answers about lifestyle, individualism/collectivism, self-esteem, school location, family members and other socio-statistical variables. The results are followings; The types of adolescents' lifestyle composed of 5 clusters, which are Pursuit of hedonic (18.9%), Adventure materialism (19.9%), Depending and pursuit of entertainment (21.4%), Internet & study (22.5%), and Strong will - economic (17.3%). Distribution of individualism/collectivism is even, and Egoist (29.8%) which belong to vertical individualism is the biggest portion. Adolescent's lifestyle has relationship to the external factors, such as school location and family income, while individualism/collectivism does rather to adolescent's own nature, such as gender and grade. Their lifestyle than their individualism/collectivism is connected with their preferred sensation more.

**Key words :** adolescent, lifestyle, individualism/collectivism, self-esteem, preferred sensation

## 1. 서 론

청소년은 경제적 풍요함과 대중매체 발전의 영향으로 감각적, 개인주의적 세대이며, 개인적인 감각의 동질성이 큰 연령대라고 할 수 있다(Fashion marketing, 1996). 이들은 디지털 환경을 배경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실시간으로 원하는 정보를 얻고, 취미나 의견이 같은 사람을 만나며, 자신의 주장을 자유롭게 얘기하면서 주장의 옳고 그름에 대해 토론하기도 한다. 이러한 자유스런 정보환경은 청소년의 인성, 사회성, 자율적인 자치 능력을 갖추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기성세대와는 다른 라이프스타일을 형성시키고 있다.

또한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사회에 익숙한 청소년은 새로운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게임의 이용, 제작 등의 활동을 통해 앞으로의 컴퓨터 관련 생활양식 유형이나 직종을 새롭게 전개시킬 것으로 보인다. 신세대는 물질적인 풍요 속에 오디오, 비디오를 선호하고, 즉흥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유행을 추종하면서도 개성을 중시한다(이화자 · 김태호, 1999).

또한 자기중심적 개인주의 성향을 갖고 있고, 가정이나 집단을 부차적으로 생각하며 국제화, 서구화를 선호한다. 이들은 N

세대로서 연간 10조원의 시장규모를 갖고 있으며 이들의 소비는 자신들의 소비생활 뿐 아니라 가족의 구매 의사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서찬주, 2000). 이들을 파악하기 위한 출발은 그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분석하는데 있다(김성중, 1994).

라이프스타일은 효과적인 시장세분화의 기준이 되며, 소비자 행동을 입체적으로 설명해주어 소비자들의 상품선택, 정보선택, 상표선택 등의 차이를 보다 유용하게 설명하여 주며 사회적 동향을 예측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김훈 · 권순일, 1999). 소비자들의 생활상 변화를 앞으로써 소비행동이나 구매행동, 구매의식의 변화 동향을 예측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예측은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라이프스타일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개인들의 가치, 태도, 신념 및 외부의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표적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수시로 분석하고 평가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박성연, 1996). 그러나 선행된 청소년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연구결과는 급변하는 현재의 실정에 적절치 못하거나 전체 라이프스타일의 일부만을 다루고 있다.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은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논의되며, 라이프스타일 유형별 상이한 문화군의 구성원들이 보이는 행위를 비교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제시되어왔다(한규석, 1991).

Corresponding author: Young-Joo Na  
Tel. +82-32-860-8136, Fax. +82-32-865-8130  
E-mail: youngjoo@inha.ac.kr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대의 청소년의 라이프스타일을 체계적으로 규명하며 라이프스타일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그들의 선호하는 감성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재 청소년의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은 어떠하며 청소년의 선호감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고, 이는 라이프스타일과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 2. 이론적 배경

### 2.1. 라이프스타일

기성세대인 문자세대에 반해 신세대인 영상세대는 감성 중심으로 사고를 하고 좋고 싫음이 분명하며 감각적으로 판단을 한다. 즉흥적 선호가 기준이 되며, 집단과 일치 지향, 자기 표현 등을 중요시하고 있다. 또한 스스로 가치창조, 자기충실, 해방된 감정, 문화 생산 소비에 참여, 사용가치의 중시 등의 라이프스타일 특성을 갖는다(김경희, 1994).

청소년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관한 연구로서 차경순(1994)은 서울지역 중·고등학생들의 의생활 양식을 상표중시형, 타인의견 신뢰형, 패션지향형, 외향형으로 분류하였으며, 강이주(1984)는 고교생들의 라이프스타일을 편리주의형, 독립적 성취형, 가족중심형, 환경중심형, 스포츠선호형, 정보탐사형, 대외활동지향형, 향락주의형, 성적집착형, 내성적순종형, 현실 비판형, 변화추구형, 전통주의형 등의 13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혜립(1993)은 서울 고등학생들의 생활양식을 6개의 유형, 즉 스포츠관심, 주거 및 식생활태도, 성취지향, 외모관심, 독서태도, 진학태도 등으로 분류하였다. 최정선 등(2000)은 대학생, 고등학생의 라이프스타일을 패션지향형, 웹취미오락추구형, 웹정보추구형, 웹매체활용형의 4유형으로 나누어 패션 구매태도를 조사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청소년의 라이프스타일을 부분적으로 한정시켜서 연구, 시도하였거나 그들의 눈높이에서 라이프스타일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한계점들을 보이고 있다.

### 2.2. 개인주의-집단주의

개인주의는 집단의 목표보다는 개인의 이해관계가 우선시되며 자기행동의 결정권을 타인에게서 찾지 않고 자신 속에서 찾는다(이철·장대련, 1994). 집단주의는 개인적인 견해보다는 소속된 집단내의 규범에 동조하기를 요구하며 또한 개인주의 사람들보다 사회적 평가에 더 신경을 쓰고 주위사람들로부터 칭송을 얻고 싶어한다.

Hofstede(1980)는 개인주의란 집단, 조직 그리고 그 외의 다른 집합체들에서 정서적으로 독립되어진 상태를 의미한다고 했고, 집단주의는 그 집단내 사람들의 애착심으로 그 구조가 보존되어지며, 특히 '우리식'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Hui(1988)은 개인주의자란 자신을 그룹과는 독립적인 존

재로써 정의하는 사람들이며 집단주의자는 자신을 그룹의 일부 분으로 인식하며, 그룹내 소속된 존재로써 상호의존적인 사람들이라고 설명한다. 개인주의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 개인의 주체성, 흥미, 그리고 독립성 등을 강조하는 반면에 집단주의는 자신이 속한 집단의 사회적 규범을 중시한다. 즉 개인주의는 독특한 자신의 개성을 강조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독립하는 경향이 강하며 집단의 목표보다는 개인의 목표를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개인간의 경쟁, 개인의 성취욕, 자기만족, 자유, 그리고 개인의 쾌락 등을 강조한다.

이에 반해 집단주의는 집단구성원 사이의 협조를 높이 평가하고 집단구성원들과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덕이며, 때로는 개인의 목표보다는 집단의 목표를 중요시한다(한상필, 1990).

Hui & Triandis(1985)에 따르면 극도로 단순한 사회에서는 원시 개인주의가 나타나며 이보다 좀더 복잡한 사회에서는 집단주의 경향이 높게 나타난다. 또한 현대사회와 같이 극도로 복잡한 사회에서는 개인주의 경향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집단주의적 성향이 높은 나라 중 하나였으나 오늘날에 이르러 집단주의와 개인주의가 함께 나타나고 있으며 주로 개인주의가 사회적 정서적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급속도로 현대화와 산업화를 이룩해 가는 우리 사회는 집단주의적인 경향에서 개인주의적인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다(차재호·정지원, 1993). 또한 50대보다는 20대가 더 개인주의적인 태도를 보였고, 도시에 살면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집합주의적인 경향을 덜 보였다. 이는 현대화의 압력을 강하게 받을수록 개인주의적인 태도를 보임을 알 수 있으며 현대화의 영향으로 종래에 있어왔던 집합주의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이 개인주의-집단주의는 청소년의 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이며 이는 청소년의 동조성, 연예인모방, 개성추구 등의 의복행동이나 소비자행동, 선호감성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형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대 청소년의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을 규명하고 이의 배경변인을 살펴봄으로써 라이프스타일과의 상관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한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연령, 성, 경험, 가족응집력 등 관련변인에 의해 변화가 크다고 하였으므로(Baldwin·Hoffmann, 2002), 청소년 자아존중감이 라이프스타일 및 개인주의-집단주의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분석하는 것도 결과의 고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파악되어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의 라이프스타일은 어떠하며 이는 어떤 유형으로 나뉘는가?
2. 청소년의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은 어떠하며 이는 라이프스타일에 따라서 상이한가?
3. 청소년의 선호감성은 라이프스타일과 개인주의-집단주의

와 상관이 있는가?

### 3. 연구방법

#### 3.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중·고등학교생이다. 연구대상을 표집하기 위해 3단계 층화방식에 의해 유의표집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1단계에서는 아파트 시세표에 근거한 거주지 계층에 따라 서울은 강남과 강북으로, 인천은 중상지역(남구, 남동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과 중하지역(동구, 서구, 중구)로 층화하였다. 서울과 인천의 인구수 및 자료의 일반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서울과 인천의 표집비율은 2:1로 하였다. 2단계에서는 지역별 표집대상 학교를 선정하였는데 지역별로 학교계열, 성별, 학년을 고려하여 모두 21개 학교를 선정하였으며 고등학교가 일반계와 실업계로 구분되므로 중학교 7개 학교, 고등학교 14개 학교로 표집하였다. 3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결정한 21개 학교에서 각각 조사협조가 가능한 학급을 1~2학급 선정하여 학급의 모든 학생들에게 질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총 1516부를 배부하여 1386부가 회수(91.5%)되어 통계처리에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았다. 분석처리를 위해서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요인분석, 군집분석, 교차분석, 분산분석, t-Test, 다중비교 등을 시행하였다.

#### 3.2. 측정도구

**라이프스타일** : 선행연구(채서일, 1994; 최문관, 1985; 한경미·나영주, 2002)에서 사용한 척도를 참고하여 청소년 조사 대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총 30문항으로 구성하였다(Table 4). 즉 청소년의 고민거리, 인터넷 관련, 신세대의 특징현상 등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파악되는 그들의 활동(activity), 흥미(interest), 의견(opinion) 등을 모두 포함하고자 하였다. 총 30문항을 질문하였으나 요인분석 결과, 유사한 개념을 가진 다른 문항이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요인으로 묶이지 못한 4문항이 제거되고 총 26문항이 라이프스타일 분석에 이용되었다.

제거된 문항은 단독 문항으로서 사용 가능하리라 사료되는데 이에는 '나는 가족의 생일을 기억하여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하는 편이다, 결혼 전까지 반드시 순결을 지킬 필요는 없다, 나의 컨셉에 맞는 제품이라면 명품브랜드와 중저가를 가리지 않는다, 미래의 부귀·명예보다 현재를 즐겁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등이 있었다.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 : 어느 문화권 집단, 혹은 개인주의적인 문화의 속성만을 지니고 있는 문화권은 없으며 대부분의 문화권이 양면성을 나름대로 지니고 있다. 특정의 문화권을 획일적인 분류로 접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일 수 있고, 동일 문화권내의 사람들은 집단주의 또는 개인주의 성향에 있어서 차이

가 있을 수 있다. 즉 집단주의 문화 내에서도 집단주의 성향의 정도가 다를 수 있고, 개인주의 문화 내에서도 개인주의 성향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이론은 문화권 간 적용뿐만 아니라 동일 문화권의 개별소비자 차원에서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소비자특성을 비교해 보는 연구에도 적용시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 적용 가능한 집단주의-개인주의성향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한 후에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윤원아, 1997).

선행연구(황지성, 1992; 구민요, 1996; 윤원아, 1997)에서 개인주의-집단주의에서 사용된 설문을 수평적, 수직적 성향으로 분리하여 수정, 보완하였으며 총 32문항으로 구성하였다(Table 6).

요인분석 결과, 선정 당시 출처 성향과 상이하게 타 성향으로 묶이는 문항이 몇 드러났는데, 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주의-집단주의 척도의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었다. 원본대로 바르게 묶인 문항들만을 사용하여 4요인으로 분류하였고, 이 4요인의 요인점수를 사용하여 2차 분석에 활용하거나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는 성향에 따라 청소년을 분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Table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성 별	남	621 (44.8)		
	여	765 (55.2)		
	계	1386 (100.0)		
개 인 변 인	아르바이트	유	620 (44.9)	
	경험유무	무	760 (55.1)	
	계	1380 (100.0)		
학 교 유 형	중학교	470 (33.9)		
	고등학교-일반계	467 (33.7)		
	고등학교-실업계	449 (32.4)		
	계	1386 (100.0)		
부 모 의 학 력	부	고졸이하	780 (57.6)	
		대졸이상	565 (43.4)	
	모	고졸이하	969 (72.7)	
		대졸이상	360 (27.3)	
월 평 균 가 계 소 득		200만원미만	393 (32.5)	
		200-400만원미만	509 (41.3)	
		400만원이상	312 (25.2)	
배 경 변 인	부 모 의 직 업 계 층*	부	중상계층	197 (15.3)
			신중간계층	332 (25.7)
			구중간계층	393 (30.5)
	모	근로/도시하류계층	346 (26.8)	
		중상계층	22 (1.7)	
		신중간계층	141 (10.8)	
		구중간계층	208 (15.9)	
	근로/도시하류	286 (22.3)		
	주부	634 (48.5)		

\*직업계층은 홍두승·구해근(2001)의 직업계층분류를 기초로 하였음.

요인분석 결과, 개인주의-집단주의 척도에서 제외된 문항은 '내가 속한 집단을 위해 나의 이익을 양보한다,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일을 못한다면 기분이 언짢다, 나는 매사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해야 한다, 나는 이웃과 사소한 것도 나누는 것을 즐긴다, 만일 동료가 상을 탄다면 나도 자부심을 느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좋은 성과를 얻었을 때 나는 분발하게 된다. 아이들은 자기할 일을 먼저 한 다음에 놀아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기는 것을 중요시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등 8 문항이다. 즉 청소년은 항상 성적이나 학습 성취도로서 서로 간에 비교 평가되고 있으므로 이런 상황에서 위의 문항들은 개인주의-집단주의를 구분해주는 척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선호 감성** : 감성어휘를 선정하기 위해서 감성적 측면을 표현할 수 있는 감성어휘를 의복관련 선행연구(이경희, 2001; 한경미·나영주, 2002)에서 사용한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총 20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요인분석결과 '현대적인'은 신뢰도가 낮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Table 2). 각 문항은 '전혀 선호하지 않는다(1점)~매우 선호한다(5점)'의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요인별 신뢰도는 0.51~0.74의 범위였으며 총 5개의 요인으로서 총 변량의 53.8%를 설명하였다.

요인1은 '독특한, 화려한' 등 6개 감성형용사로 묶였으므로 '화려함'이라고 명명하였고 요인2는 '낭만적인, 우아한' 등 4개 감성형용사로 묶였으므로 '낭만성'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3은 '활동적인, 유머의' 등으로 구성되었으므로 '활동성'이라고 명명하였으며 청소년의 '유행을 선도하는' 감성은 '활동성'에 포함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요인4는 '남성적인, 고전적인' 등으로 구성되어 '남성성'이라고 명명하였으며, 요인5는 '수공예적인, 전원풍'로 묶임으로 인해 '수공예적'이라고 명명하였다. t-Test 분석 결과, 남·여학생에 따라 선호감성은 달랐는데 ( $p<0.0001$ ) 여학생이 '화려함, 낭만성, 활동성, 수공예적' 등을 선호하였고 남학생이 '남성성'을 선호하였다.

**자이존증감** : 자이존증감 척도는 Rosenberg(1965)가 개발하고 고대부설 행동과학연구소(1999)가 번안본을 제시한 'Self-Esteem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긍정문항과 부정문항을 포함하여 모두 11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각 문항은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항상 그렇다'의 4점까지의 리커트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평가하는 자이상을 자존감의 반영으로 보고 이를 측정하는 것으로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감정 상태나 인지적인 추론으로 자이개념을 파악하면서 총체적인 자기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다.

문항의 예로는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많은 것 같다, 대체로 내 자신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등을 들 수 있다. 부정문항은 리코딩하여 모든 문항에 대해 평균을 환산하였으며 이를 2차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이존증감 척도의 신뢰도는 0.77로 나타났다. 기타 척도 중에서 청소년의 '한달용돈' 질문의 유목의 수를 9단계로 하였는데, 최소 '2만원'부터 '2만원씩'의 간격으로 '20만원미만'까지 나누고 '20만원이상'을 포함하

**Table 2.** 청소년의 선호감성 형용사의 요인분석 결과

	성 분					신뢰도
	요인1 화려함	요인2 낭만성	요인3 활동성	요인4 남성성	요인5 수공예적	
독특한	.653					
화려한	.650					
귀족적인	.649					.74
이국적인	.621					
대담한	.538					
세련된	.519					
낭만적인		.717				
우아한		.677				
어른스런		.602				.65
섹시한		.451				
활동적인			.695			
유머의			.605			
귀여운			.560			.58
유행을 선도하는			.407			
남성적인				.707		
한국적인				.678		.54
클래식한				.464		
수공예적인					.775	
전원풍의					.613	.51
고유값	3.09	1.72	1.18	1.10	1.01	
설명변량(%)	13.2	12.6	10.7	8.8	8.5	

였으며, 또한 '가족월수입' 질문의 유목 수를 11개로 하였는데, '100만원이하'부터 '100만원씩'의 간격으로 '1000만원미만'까지 나누고 '1000만원이상'을 포함하였으므로 등간척도로 가정하여 평균치를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 4. 연구 결과

### 4.1. 청소년들의 라이프스타일 분석

청소년의 라이프스타일을 분석한 결과 7개의 라이프스타일 요인이 추출되었으며(Table 3), 신뢰도 Cronbach  $\alpha$  값은 0.55~0.72로 나타났다. 요인수를 최소화하면서 정보손실을 최대한 막고 측정의 타당성을 저해하는 변수들을 추출하기 위해서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였고 변수들의 요인분류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직교회전방식(varimax)을 이용하였다. 요인수의 결정은 아이겐값이 1.0 이상이며 분산의 합을 기준으로 요인수를 7개로 최종결정하였으며 총설명변량은 50.2%이었다.

요인 1은 '나는 술 담배 등의 기호식품을 동료보다 많이 하는 편이다, 이성교제를 많이 하는 편이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쾌락성'으로 명명하였으며, 요인 2는 '나는 남이 하지 않는 색다른 모험에 도전하고 싶다, 한 직장에서 성공하기보다는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 싶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도전성'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3은 '나는 학업에 매진하는 편이다, 사회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학업성'으로 명명하였으며 요인 4는 '나는 인기있는 대중가요를 거의 외우고 있다, 스포츠 연예계에 관한 대화를 친구와 즐겨 나눈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연예성'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5는 '나에겐 TV보다 컴퓨터가 더 익숙한 매체이다, 나는 인터넷을 통한 동호회에 많이 가입한 편이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인터넷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6은 '같은 취미기호를 가진 사람들과 공동주거에 거주하고 싶다, 하고 싶은 일은 부모님이 반대하셔도 나의 뜻대로 하는 편이다, 나는 학교의 규칙에 얽매이는 것이 싫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므로 '의지력'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7은 '돈을 많이 벌어야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나는 상품의 품질보다 외관을 중요시하는 편이다' 등으로 구성되었으므로 '물질성'으로 명명하였다. 라이프스타일 7개 요인의 전체 설명력은 60.1% 이었다.

요인분석을 남·여학생을 구분하여 실행함으로써 남녀 성별에 따라 라이프스타일의 요인 묶임에 있어서 차이유무를 확인하였으나 여학생의 경우, '요인1: 쾌락성'에서 '상품구매시 유

행추구성'이 분리되어 요인수가 1개 증가하는 것을 제외하면 큰 차이가 없었으므로 이후로 전체데이터를 사용한 요인분석 결과를 이용하였다.

라이프스타일 7개의 요인점수를 이용하여 군집분석을 시행하여 유형간의 특성이 뚜렷하게 부각되는 5개의 군집을 선정하였다. 즉 라이프스타일 측정 항목들에 대한 응답의 유사성 정도에 따라 청소년을 몇 개의 군집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라이프스타일 요인들과 군집들과의 교차분석을 통하여 군집들의 성격을 규정하고 유형화 하였다. 군집수의 결정에는 군집들 간의 유사성 및 중복성이 극소화되고 있으나 하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군집수를 5개로 정하였다. 각 라이프스타일 유형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유형별 일원분산분석과 Duncan 사후검증 한 결과는 Table 4와 같았다. 모든 라이프스타일 요인에서 유형에 따라  $p < 0.0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유형 1은 '쾌락성'에서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도전성'에서는 낮게 나타나고 있었으므로 '교제유형'으로 명칭하겠다. 유형 2는 '도전성, 물질성' 요인 등에서 높게 나타나

Table 3. 청소년의 라이프스타일 요인분석 결과

라이프스타일 문항	성 분							α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7	
나는 술,담배 등의 기호식품을 동료보다 많이 하는 편이다	.708							.72
나는 동료들보다 이성교제를 많이 하는 편이다	.693							
친구들 중 나는 '범생이' 보단 '날라리'인 편이다	.632							
나는 화장을 친구들보다 많이 하는 편이다	.596							
나는 친구나 주위 사람들 보다 새로운 상품을 먼저 구입하는 편이다	.505							
나는 현재의 유행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453							
주방, 욕실 등 실용적 공간에 투자하는 것이 가치있다	.684							.60
나는 남이 하지 않는 색다른 모험에 도전하고 싶다	.616							
한 직장에서 성공하기보다는 한 분야의 전문가 되고싶다	.582							
나를 남에게 소개할 때 뚜렷하게 인상을 남기고 싶다	.488							
나는 지역사회봉사를 친구들 보다 많이 하고있다			.707					.50
나는 학업에 매진하는 편이다			.662					
나는 사회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506					
건강을 위해 특별한 운동을 하거나 먹는 음식에 신경을 쓴다			.471					
나는 인기대중가요를 거의 외우고 있다				.740				.54
스포츠 연예계에 관한 대화를 친구와 즐겨 나눈다				.689				
나에겐 TV보다 컴퓨터가 더 익숙한 매체이다					.681			.57
나는 인터넷이나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불만사항이나 문제를 제기하는 편이다					.676			
나는 인터넷을 통한 동호회에 많이 가입한 편이다					.655			
나는 외국문물, 펜팔 등 타문화 접촉기회를 많이 가지려고 노력한다					.478			
같은 취미기호를 가진 사람들과 공동주거에 거주하고 싶다						.644		.52
하고 싶은 일은 부모님이 반대하셔도 나의 뜻대로 하는 편이다						.605		
나는 학교의 규칙에 얽매이는 것이 싫다						.577		
남녀가 해야할 일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427		
돈을 많이 벌어야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719	.42
나는 상품의 품질보다 외관을 중시하는 편이다							.631	
고유값	9.75	6.61	6.39	6.37	6.21	4.31	2.01	
설명변량(%)	10.2	7.3	7.2	7.0	6.7	6.9	4.9	

고 있으며 ‘학업성, 연예성’ 요인에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모험물질추구형’이라고 명칭하겠다. 유형 3은 ‘연예성’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 ‘도전성, 의지력’ 요인에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의존적연예관심형’이며, 유형 4는 ‘학업성, 인터넷성’ 요인 등이 높게 나타난 반면에 ‘물질성’ 요인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므로 속칭 ‘인터넷모범생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유형 5는 ‘의지력, 물질성’ 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쾌락성, 인터넷성’은 가장 낮게 나타났으므로 ‘의지력경제형’으로 명칭하겠다.

우리나라 청소년 중에서 가장 많은 유형이 청소년의 21.44%를 차지하는 ‘인터넷모범생형’이며, 다음으로 중학생에 많은 ‘의존적 연예관심형’, 그 다음으로 ‘모험물질추구형’, ‘교제유혹형’, ‘의지력경제형’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어느 한 유형에 치우치지 않고 비교적 고른 분포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2. 청소년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배경특성**

라이프스타일 유형간 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chi^2$ 를 시행한 결과는 Table 5과 같았다.

라이프스타일 유형의 비율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p<0.05), ‘강남’에서는 ‘유형4: 인터넷모범생형’이, ‘강북’에서는 ‘유형1: 교제유혹형’이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인천’에서는 ‘유형3: 의존적연예관심형’이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중학생은 ‘유형3: 의존적연예관심형’이, 고등학교 일반계는 ‘유형4: 인터넷모범생형’이, 고등학교 실업계는 ‘유형1: 교제유혹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p<0.001).

부모의 학력 중 특히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유형4: 인터넷모범생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p<0.001). 즉 ‘중졸’에서는 ‘유형1’이, ‘고졸’에서는 ‘유형2’가, ‘대졸이상’에서는 ‘유형4’가 가장 많았다. 부모의 직업계층에서는 어머니의 직업계층이 ‘중상계층과 신중간계층, 주부’ 일때 ‘유형4’의 비중이 높았다. 반면에 ‘구중간계층이나 근로/도시하류계층’의 직업에서는 유형1, 유형2의 비중이 높았다.

‘유형1: 교제유혹형’과 ‘유형2: 모험물질추구형’의 용돈이 타

유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형3: 의존적연예관심형’의 용돈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p<0.05). 이는 중학생이 많은 의존적연예관심형의 용돈이 적은데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에 가족의 월소득은 ‘유형4: 인터넷모범생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

또한 집소유형태도 ‘부모소유’인 경우에는 ‘유형4: 인터넷모범생형’이 가장 많았고, ‘전월세’인 경우에는 ‘유형2: 모험물질추구형’이 가장 많았다(p<0.05). 가족구성원에 따라서도 달랐는데, ‘조부, 부모, 형제와 거주’ 및 ‘부모, 형제와 거주’의 경우에는 ‘유형3과 유형4’의 비중이 컸으나 ‘편부모, 형제거주’ 및 ‘기타’의 경우에는 ‘유형1과 유형2’의 비중이 컸다(p<0.05).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서 자이즌증감과 선호하는 감성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중 ‘유형4: 인터넷모범생형’이 다른 유형들보다 자이즌증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p<0.01). 이는 아버지의 학력의 분포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형1: 교제유혹형’이 ‘화려성과 낭만성’을 선호한다고 답한 반면에 ‘유형3: 의존적연예관심형’이 거의 모든 감성에서 선호도가 낮으므로 아직까지 선호하는 감성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p<0.001). ‘유형4: 인터넷모범생형’이 ‘남성성과 수공예적’을 가장 선호하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성’은 청소년 유형에 따라서 서로 다르지 않았는데 거의 모든 라이프스타일의 청소년이 이 감성을 선호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4.3. 청소년의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

청소년의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을 측정하여 주성분 분석, varimax 회전에 의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6과 같이 나타났다. 각 요인별 신뢰도는 0.57~0.93 범위였으며, 총 4 요인으로서 총 변량의 46.0%를 설명하였다. 요인1은 ‘나의 즐거움은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다’ 등으로 구성되어 ‘수평적 집단주의’라고 할 수 있고 이는 ‘민주 공동체의식’이라고 볼 수 있겠다. 요인2는 ‘나는 다른 사람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사람이다, 나는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수평적 개인주의’라고 할 수 있고 이는 바람직한

**Table 4.**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청소년의 유형

라이프스타일 요인 점수	유형1 교제유혹형 (18.86%)	유형2 모험물질추구형 (19.92%)	유형3 의존적연예관심형 (21.44%)	유형4 인터넷모범생형 (22.52%)	유형5 의지력경제형 (17.26%)	F 값
요인1	1.35	.07	-.46	-.36	-.52	285.8***
요인2	-.43	.87	-.82	.54	-.22	223.4***
요인3	.24	-.85	-.42	.86	.11	186.1***
요인4	-.23	-.42	.38	.14	.09	28.8***
요인5	-.02	-.03	.29	.57	-1.0	128.3***
요인6	.25	-.29	-.61	.11	.79	90.1***
요인7	.05	.24	-.17	-.32	.29	19.7***

p<0.001\*\*\*

**Table 5.** 청소년들의 라이프스타일 유형과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선호감성

구분		유형1 (N=248)	유형2 (N=262)	유형3 (N=282)	유형4 (N=296)	유형5 (N=227)	$\chi^2$ 또는 F
지역	강남	77(31.0)	86(32.6)	87(30.9)	<b>114(38.5)</b>	78(34.4)	21.96*
	강북	<b>96(38.7)</b>	78(29.8)	80(28.4)	94(31.8)	75(33.0)	
	인천중상	65(26.2)	85(32.4)	<b>91(32.3)</b>	77(26.0)	57(25.1)	
	인천중하	10( 4.0)	13( 5.0)	<b>24( 8.5)</b>	11( 3.7)	17( 7.5)	
공학여부	남학교	58(23.4)	66(25.2)	80(28.4)	72(24.3)	51(22.5)	
	여학교	104(41.9)	111(42.4)	100(35.5)	137(46.3)	103(45.4)	
	남녀공학-남	62(25.0)	56(21.4)	57(20.2)	45(15.2)	41(18.1)	
	남녀공학-여	24( 9.7)	29(11.1)	45(16.0)	42(14.2)	32(14.0)	
성별	남	120(48.4)	122(46.6)	137(48.6)	117(39.5)	92(40.5)	
	여	128(51.6)	140(53.4)	145(51.4)	179(60.5)	135(59.5)	
학교	중학교	45(18.1)	77(29.4)	<b>142(50.4)</b>	113(38.2)	62(27.3)	117.73***
	고등학교-일반계	75(23.4)	78(29.8)	73(25.9)	<b>118(39.9)</b>	102(44.9)	
	고등학교-실업계	<b>128(51.6)</b>	107(40.8)	67(23.8)	65(22.0)	63(27.8)	
부모의 학력 부	중졸	<b>35(14.5)</b>	28(10.9)	30(11.0)	20(6.9)	25(11.5)	47.73***
	고졸	122(50.4)	<b>142(23.4)</b>	129(47.4)	117(40.3)	98(45.0)	
	대졸	66(27.2)	69(35.4)	90(33.1)	<b>118(40.7)</b>	80(43.5)	
	대학원이상	19(7.9)	18(7.7)	21(7.7)	<b>35(12.1)</b>	13(6.0)	
	모	중졸	40(17.0)	46(18.3)	44(16.5)	31(10.8)	
고졸	133(56.6)	150(59.5)	154(57.7)	<b>160(55.6)</b>	132(60.3)		
대졸	51(21.7)	48(19.1)	54(20.2)	<b>83(28.9)</b>	44(20.1)		
부모의 직업계층	대학원이상	11( 4.7)	8( 3.1)	15( 5.6)	14( 4.9)	7( 3.2)	24.85
	중상계층	37(16.4)	28(11.7)	37(14.0)	49(17.0)	33(16.3)	
	신중간계층	51(22.6)	61(24.8)	81(30.6)	80(27.8)	42(20.7)	
	구중간계층	69(30.7)	81(32.9)	72(27.2)	94(32.6)	60(29.0)	
	근로·도시하류계층	66(29.3)	70(28.5)	70(26.2)	60(20.8)	68(33.0)	
모	중상계층	5( 2.0)	1( 0.3)	4( 1.5)	5( 1.8)	4( 1.9)	44.92**
	신중간계층	22( 9.5)	20( 7.9)	37(14.0)	<b>40(14.5)</b>	14( 6.6)	
	구중간계층	<b>47(20.3)</b>	45(17.9)	38(14.1)	30(10.9)	32(15.1)	
	근로·도시하류계층	45(19.5)	<b>68(27.0)</b>	56(20.9)	52(18.9)	53(25.0)	
주부	109(47.3)	116(19.0)	130(48.5)	<b>148(53.8)</b>	109(51.4)		
청소년의 용돈	평균	3.88 A	4.05 A	<b>2.30 B</b>	3.14 AB	2.85 AB	*
가족의 월소득	평균	4.60 B	4.50 B	4.61 B	<b>5.32 A</b>	4.50 B	****
집소유형태	부모소유	154	139	181	<b>197</b>	138	17.1*
	전월세	81	<b>106</b>	90	87	78	
	기타	5	11	5	4	3	
가족구성원	조부, 부모, 형제	24	21	38	36	30	23.4*
	부모, 형제	165	182	202	<b>218</b>	163	
	편부모, 형제	25	21	14	12	14	
	기타	33	37	26	28	17	
차이존중감	평균	2.50 B	2.47 B	2.53 B	<b>2.63 A</b>	2.53 B	**
선호감성(평균)	화려성	<b>0.19 A</b>	0.15 A	-0.20 B	-0.02 B	0.02 A	***
	낭만성	<b>0.28 A</b>	-0.01 C	-0.17 C	0.00 B	-0.07 B	***
	활동성	0.02	0.08	-0.21	0.03	0.09	
	남성성	-0.15 B	-0.13 B	-0.10 B	<b>0.35 A</b>	0.04 B	***
	수공예적	-0.12 B	-0.01 B	-0.10 B	<b>0.23 A</b>	-0.02 B	***

p<0.05\*, p<0.01\*\*, p<0.001\*\*\*, p<0.0001\*\*\*\*

‘개인주의’라고 볼 수 있겠다. 요인3은 ‘경쟁은 삶의 원칙이다, 격렬한 경쟁 상황에 참여하는 것을 즐긴다’ 등으로 구성되어 ‘수직적 개인주의’이며 ‘이기주의’라고 할 수 있겠다. 요인4는

‘부모님들과 자식들은 가능한 한 함께 살아야 한다, 내가 원하는 것을 희생해서라도 나의 가족을 부양해야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수직적 집단주의’, 즉 ‘가족주의’라고 볼 수 있겠다.

Table 6.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항의 요인분석 결과

개인주의- 집단주의 설문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신뢰도 $\alpha$
나의즐거움은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다	.694				
사람들과 함께 어떤 일을 같이 할 때 기분이 좋다	.686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다	.623				
나의 동료가 잘되는 것이 나에게 중요하다	.620				
어떤 일을 결정을 하기 전에 친한 친구에게 의견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616				.77
내가 속한 집단의 구성원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	.608				
만일 친인척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나는 능력이 되는 데까지 도와 준다	.593				
나는 내가 속한 집단의 대다수의 의견을 존중한다	.573				
내가 속한 집단들의 결성사항을 존중하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565				
나는 다른 사람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사람이다		.740			
나는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650			
나는 내가 하나의 인격체라는 사실에게 중요하다		.644			
나는 내 방식대로 산다		.586			
나만의 개성을 추구하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586			.93
다른 사람과 달리 독립적인 인격체가 되는 것이 나에게 중요하다		.585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기 보다는 나에게 의존한다		.473			
다른 사람을 믿기보다는 나 자신을 믿는다		.443			
경쟁은 삶의 원칙이다			.775		
격렬한 경쟁 상황에 참여하는 것을 즐긴다			.704		
어느 경쟁에서나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633		.66
경쟁 없이는 좋은 사회를 이룩할 수 없다			.510		
부모님들과 자식들은 가능한 한 함께 살아야 한다				.689	
내가 원하는 것을 희생해서라도 나의 가족을 부양해야한다				.632	.57
가족들은 어떠한 희생이 요구된다하더라도 서로 단결해야한다				.573	
고유값	6.5	2.0	1.6	1.3	
설명변량(%)	16.4	13.3	8.4	7.9	

우리나라 청소년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성향은 이기주의(29.8%)라고 볼 수 있으며 다음으로 가족주의(24.5%), 민주공동체주의(24.1%), 개인주의(21.6%)의 순서라고 할 수 있겠다.

청소년의 개인주의-집단주의는 라이프스타일 유형과는 달리, 학교나 부모 등의 외부적 특성보다는 청소년 성별, 연령 등의 청소년 개인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의 성별( $p<0.0001$ ), 지역( $p<0.05$ ), 학교유형( $p<0.05$ ), 가족월소득( $p<0.05$ ), 집소유형태( $p<0.05$ ), 가족구성원( $p<0.05$ ) 등에 따라 상이하였다. 즉, 남학생은 '이기주의'가 많은 반면에 여학생은 '이기주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001$ ). 이는 여학생이 소속집단이나 규율을 만들고 오히려 스스로 구속되기를 원하고 있으며, 남학생이 집단의 목표보다는 개인의 목표를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개인간의 경쟁, 개인의 성취욕, 자기만족, 자유, 그리고 개인의 쾌락 등을 추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강남, 강북지역'의 청소년에서 '이기주의'가 '인천지역'에서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5$ ). 이는 현대화가 될 수록 더욱 개인주의가 발달하는 것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사료된다. '강남'에서는 '가족주의'가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인천'에서는 '개인주의'가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실업계의 청소년에는 '이기주의와 가족주의'

가 많은 반면에 고등학교 일반계에는 '개인주의와 민주공동체주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5$ ). 이로써 연령이 어리거나 실업계 청소년은 자신이나 가족의 테두리 내에서 생활영위 및 생각을 하는 반면에 일반계 청소년은 보다 성숙화, 세계화된 영역으로 진보했다고 사료된다.

'개인주의' 청소년의 가족 월소득이 가장 높았으며 '가족주의' 청소년의 가족월소득이 가장 낮았다( $p<0.05$ ). '개인주의' 청소년이 용돈도 가장 많았다. 가족구성원에서는 '주부모도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에게 '민주공동체주의'가 더 많으며 '부모, 형제와만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에게 '이기주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5$ ).

'개인주의'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은 반면에 '민주공동체주의'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가장 낮았다( $p<0.05$ ).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낮기 때문에 집단의 결정에 따르거나 친구의 의견이나 자문을 구하게 되는 수동적 민주공동체주의이며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라고 사료된다. 이는 청소년이 스스로에 대해 존중감을 갖지 못하면서 또래집단 결정을 우선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이므로 현재 청소년을 위한 올바른 지도 및 교육이 절실하다고 사료된다. 그간 공부에만 매달려온 우리의 교육현실이 그 원인중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즉 우리나라 청소년의 '수평집단주의'는 Hofstede가 말한 '집단내 사람



들의 애착심으로 그 구조가 보존되고 '우리의식'이 두드러진 상태인 민주공동체주의'라기 보다는 이철·장대련이 말한 '개인적인 견해보다는 소속 집단내의 규범에 동조하기를 서로 요구하며 또한 개인주의 사람들보다 사회적 평가에 더 신경을 쓰고 주위로부터 칭송을 얻고 싶어 한다는 측면이 강한 수평집단주의'라고 볼 수 있겠다.

선호감성은 '화려함'을 '개인주의'인 청소년이 가장 선호하고 '가족주의'인 청소년이 가장 선호하지 않았다. '수공예적' 감성도 '개인주의' 청소년이 선호하고 있었으므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가정의 청소년은 화려함, 수공예적 등의 감성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겠다. '가족주의' 청소년의 용돈이 가장 적으며 가족월소득도 낮은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활동성'은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활동성'은 '민주공동체주의' 청소년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부모의 학력이 낮은 편이고 직업계층도 구중간계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에, '활동성'의 선호도가 가장 낮은 '이기주의'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학력이 높은 편이고 직업계층도 신중간계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즉 '활동적인, 귀여운, 유머의, 유행을 선도하는' 등의 감성을 포함하는 '활동성'은 부모의 직업이나 교육관과 상관이 깊은 것으로 사료된다.

'이기주의' 청소년은 거의 모든 감성을 선호하지 않았는데 ( $p < 0.01$ ), 이들은 남학생에 많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실업계의 비중이 높으며, 부모의 학력이 매우 높지도 낮지도 않은 중간 정도이었고, '편부모'의 가족구성원일 경우였는데 이들은 어느 감성도 선호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개인주의' 청소년은 거의 모든 감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들은 주로 서울에 살고, 여학생이고, 고등학교-일반계가 많고, 용돈과 가족월수입이 매우 높고, 부모님소유의 집에서 살고 있는 특징이 있다.

## 5.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남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라이프스타일과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을 규명하고 그 특성을 살펴봄에 이러한 청소년 유형에 따라 선호하는 감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청소년의 라이프스타일 요인은 '쾌락성, 도전성, 학업성, 연예성, 인터넷성, 의지력, 물질성'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을 분류한 결과, 5 유형으로 나누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료들보다 술담배, 이성교제, 신상품구매 등을 많이 하고 있으며 모험이나 전문가의 꿈, 인상적인 자신소개 등에는 관심이 매우 낮은 유형인 '교제유희형'이 18.86%를 차지하고 있었다. 유형 2는 새로운 모험에 대한 도전이나 전문가적인 삶과 상품의 외관 및 부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지만 전혀 현 학업에 관심을 두지 않으며 스포츠나 연예 소식에도 흥미가 없는 '모험물질추구형'으로 19.92%를 차지하

고 있었다. 유형 3은 유행가요를 거의 다 외우거나 스포츠 연예계에 관심이 많은 반면에 모험에의 도전성이나 자신의 의지력이 매우 낮고 부모의 의견을 따르는 편인 '의존적연예관심형'으로서 21.44% 차지하였다. 유형 4는 22.5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터넷모범생형'으로서 학업에 매진하고, 인터넷을 통해 불만을 제기하며 인터넷 동호회도 가입하여 활동하며 사회 전반에 관심이 많은 반면에 물질관이 낮은 집단이다. 유형 5는 부모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자신의 의견이 뚜렷하며 물질에 대한 관심이 높고 동료들보다 술담배, 화장 등을 꺼리고 이성교제나 인터넷도 기피하는 '의지력경제형'으로서 17.26%를 차지하고 있었다. 청소년의 라이프스타일유형에 따라 '학교지역, 학교유형, 부모의 학력, 부모의 직업계층, 용돈, 가족의 월소득, 집소유형태, 가족구성원' 등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강남'에 '인터넷모범생형'이 많고 '강북'에는 '교제유희형'이 많았으며, 중학교에는 '의존적연예관심형', 고등학교-일반계에는 '인터넷모범생형'과 '의지력경제형'이, 고등학교-실업계에는 '교제유희형'이 많았다. 부모의 교육수준에서 특히 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직업계층에서 특히 모의 직업계층이 '주부'이거나 '중상계층' 이상일수록, 청소년의 라이프스타일은 '인터넷모범생형'이 많았다.

'인터넷모범생형'이 다른 유형보다 가족월수입이 많았는데, 이는 소위 '강남' 지역 학생들이 대학진학률이 높고 교육만족도가 높은 것(조선일보, 2003)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교육여건의 차이의 원인에 대해 학군간 학교수준 차이 이외에 사교육 여건차이, 부모들의 교육열 차이 등을 들고 있었다. 학생자신의 용돈은 '인터넷모범생형'보다 '교제유희형'이나 '도전물질추구형'이 더 많이 쓰고 있었던 점이 주목할 만하다. 청소년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모범생형'이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았는데 이 역시 청소년들의 주생활인 학업의 결과물인 성취도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상승이라고 사료된다.

청소년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서 선호감성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모범생형' 청소년은 '남성성, 고전적, 한국적, 수공예성, 전원풍' 등의 감성을 선호하고 있었다. 반면에, '교제유희형'과 '도전물질추구형'의 청소년은 '화려한, 이국적인, 귀족적인, 세련된, 독특한, 섹시한, 낭만적, 대담한, 어른스런' 등의 감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의 모습보다는 성인의 라이프스타일을 동경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고등학생과는 달리 중학생은 특별히 선호하는 감성이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인터넷 사용자는 비사용자에 비해 개인주의 성향이 높다고 한 연구 결과(김훈·권순일, 1999)와 유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의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은 선호감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주의-집단주의에 따라서 선호감성이 다르게 나타났으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선호감성이 달랐던 결과와는 달리, 거의 모든 감성을 선호하거나 혹은 거의 모든 감

성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주의나 민주공동체주의' 청소년들은 거의 모든 감성을 선호하고 있었고 '이기주의나 가족주의' 청소년들은 거의 모든 감성을 선호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차별적 감성제품의 개발이나 마케팅 전략은 청소년의 개인주의-집단주의보다는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중 · 고등학생의 라이프스타일이 서로 다르고 라이프스타일에 따라서 청소년의 선호감성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으며, 또한 청소년은 성별, 용돈 등의 개인적 특성보다는 외부적 특성인 학교와 부모의 학력, 소득 등에 따라 청소년의 라이프스타일이 주로 결정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 시장에 대한 마케팅 전제가 제안될 수 있겠다.

**감사의 글 :** 본 논문은 2001년도 인하대학교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22101-01).

### 참고문헌

강이주 (1984) *청소년의 생활양식 유형분석* - 서울의 고교생들을 중심으로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대부설 행동과학연구소 (1999) "심리척도핸드북". 학지사, 서울, pp. 176-183  
 구민요 (1996) 한국과 대만대학생의 개인-집합주의특성과 가치관의 차이.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경희 (1994) 우리나라 신세대층의 규명과 라이프스타일 특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성중 (1994) 신세대 라이프스타일 포착이 성공의 열쇠. *광고정보*, 5, 6.  
 김훈·권순일 (1999) 인터넷 사용자의 라이프스타일과 구매의상결정에 관한 탐색적 연구. *경영학연구*, 28(2), 353-371.  
 박성연 (1996) 한국인의 라이프스타일 유형과 특성. *마케팅 연구*, 11(1), 19-34.  
 서찬주 (2000) N세대와 마케팅전략. *광고정보*, 22-29.  
 윤원아 (1997) 우리나라 소비자의 집단주의-개인주의성향에 관한 척도개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경희 (2001) 패션감성의 측정도구개발에 관한 연구(제1보). *한국의류학회지*, 25(3), 537-547.  
 이철·장대련 (1994) 한국-아랍 소비자 구매의사결정에 관한 비교

문화적 연구: Fishbein Behavioral Interaction Model을 중심으로. *소비자학 연구*, 5(1), 113-115.  
 이화자·김태호 (1999) 초중고생간의 구매의사결정과정에 대한 비교 연구. *광고연구*, 43, 97-113.  
 이해림 (1993) 남자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 및 라이프스타일과 의복태도와의 관계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선일보 (2003) 강남병 이유 있었네. 7.14일자 사회면.  
 차경순 (1994) 라이프스타일의 차이에 따른 외국상표선호 경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소년 캐주얼 의류시장을 대상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차재호·정지원 (1993) 현대한국사회에서의 집합주의. *한국심리학회지*, 17(1), 150-153.  
 채서일 (1994) 신세대에 관한 라이프스타일분석. *고려대 경영논총*, 38, 93-94.  
 최문관 (1985) 우리나라 청소년의 라이프스타일 및 기캐주얼 스포츠화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정선·유태순·오희선 (2000) N세대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패션구매태도에 관한 연구. *복식*, 50(6), 21-31.  
 한경미·나영주 (2002) 여성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과 선호감성. *한국의류산업학회지*, 4(1), 56-63.  
 한규석 (1991) 집단주의-개인주의 이론의 현황과 그 전망. *한국심리학회지*, 10(1), 1-19.  
 한상필 (1990) 개인주의 문화와 집단주의 문화: 한국과 미국광고에 나타난 문화적 차이에 대한 비교연구. *광고연구*, 225-249.  
 홍두승·구해근 (2001) "사회계층계급론". 다산출판사, 서울, pp.  
 황지성 (1992)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에 관한 교차문화적 비교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Baldwin, S. and Hoffmann, J. (2002) The dynamics of self-esteem: A growth-curve analysi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1(2), 101-113.  
 Fashion marketing magazine (1996) NON AGE CAREER. May, 47.  
 Hofstede, G. (1980) "Culture's Consequence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Related Values". Beverly Hills, CA: Sage, p.55.  
 Hui, C. (1988) Measurement of individualism-collectivism. *Journal of Research Personality*, 22, 17-36.  
 Hui, C. and Triandis, H. (1985) Measurement in cross-cultural psychology: view and comparison of strategi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6, 131-152.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NY, p.70.

(2003년 7월 21일 접수)